
청동기시대 석기로 본 부산의 지역성

황창한 / 울산문화재연구원

목 차

I. 머리말	V. 석기의 산지·제작지·유통에 대한 검토
II. 부산의 지리적 특징 및 유적의 분포	VI. 석기를 통해 본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III. 시기구분	VII. 맺음말
IV. 석기의 기종별 석재분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 머리말

한반도 남부지역의 靑銅器時代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정의된 특정 類型¹⁾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자료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한 2000년대를 起點으로 심화·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초기의 연구는 무문토기의 시대적 정체성과 편년·시기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유물 및 유구의 총체적 樣式化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자료가 적고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특정 유물과 유구가 부각되던 당시에 자연스럽게 歸納的 연구방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른바 ‘지역별 양식화’의 소산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청동기시대 물질문화 연구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微視的 연구는 특정 양식의 설정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

1) 전기 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 및 후기 김단리·송국리유형.

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이후 점차 자료가 증가하면서 편년 및 지역적인 한계를 나타내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료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활발한 연구로 인해 前시기에 연구된 큰 틀에서 보다 심화·발전된 지역별 연구가 잇따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쏠시기, 나아가 前·後시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통찰함과 동시에 청동기시대 동북아 전역의 물질문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巨視的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小地域 단위의 세부적인 편년과 지역성, 그것을 토대로 지역간 교류, 나아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원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釜山地域²⁾은 청동기시대 후기 한반도 남부지역의 양대 문화권으로 대별되는 '검단리문화 분포권'과 '송국리문화 분포권'의 접이지역에 속하여 연구대상지역으로서 중요한 문화사적 의의를 가지는 곳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다소 연구가 미진한 死角地域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청동기시대를 포함해 前·後 시기인 신석기시대 유적과 삼한·삼국시대 유적이 다양하게 확인되는 지역으로 선사~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최근에는 도시화 진행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기장군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신자료가 發掘·報告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석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석기에

2)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행정구역상 釜山廣域市 일대이며 이곳에서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와 연구자가 증가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기존의 석기연구가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년, 계통연구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면 최근의 연구기류는 제작기술, 산지추정, 생업의 형태, 생산시스템, 유통, 교류 등 청동기시대 사회시스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석기류의 석재를 분석하여 각 기종별 석재의 특징과 이용현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석재의 산지를 추정하고 부산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암석을 중심으로 제작지와 유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부산의 지리적 특징 및 유적의 분포

1. 자연·지리적 특징

부산광역시는 한반도의 最동남단에 위치한 해양도시로서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인간이 생활하기에 천혜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부산의 주요 山系는 한반도의 脊梁山脈인 태백산맥의 최남단에 속하는 금정산(801.5m)이 중심이 되어 동서 방향으로 분할된 양상이다. 이러한 금정산맥은 백양산(642m), 엄광산(503.9m), 구덕산(565m), 승학산(495m) 등 해발 500m 내외의 크고 작은 독립구릉과 다시 여기에서 뻗어 나온 얇은 구릉성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은 낙동강과 수영강의 分水界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ㄷ'字形을 하고 있어 도심을 병풍처럼 아우르는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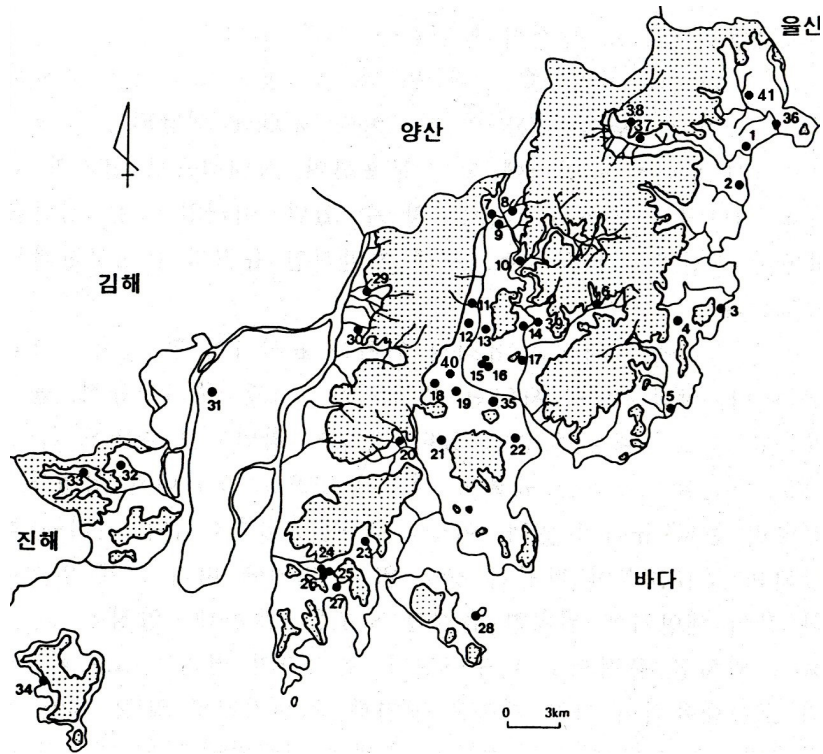
小지역권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부산의 동쪽은 1997년에 부산

광역시에 편입된 기장군과 해운대구가 중심지역으로 일광면·기장읍은 해안에 접해있고, 철마면·정관면은 內陸地域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장군 정관면은 백운산(520m)·달음산(587m) 등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방향으로 좌광천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대 이래 인간이 생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의 서쪽은 남북방향으로 금정구·동래구·진구·사하구 등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권으로 금정산(801.5m)·백양산(642m)·엄광산(503.9m)·구덕산(562m) 등의 고지성 산지에서 뺀어 내린 얇은 구릉과 양산에서 발원하는 수영강·온천천 등의 소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하천의 川邊에는 소규모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취락이 입지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심지역으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原地形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사상구와 사하구가 위치하는 낙동강 하류역은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하지만, 이 지역이 실제로 농경지화 된 시기는 1900년대 이후이며 충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각주 또한 古金海灣에 속하는 지역으로 육지화 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이다.³⁾ 따라서 가덕도·영도와 같은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과거에는 해안선이 도심지역까지 들어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地理的 조건은 남·동쪽이 해안에 접해있고 김해·양산·울산 등 인접지역과 별다른 장애가 없이 왕래가 원활하기 때문에 강서구 낙동강 이서의 남해안지역, 해운대·기장 북동부 동해안지역, 금정구 이북 내륙지역, 나아가 일본열도까지 舍방위로 흐름이 용이한 편이다.

3) 오건환·곽종철, 1989,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I)-地形環境과 遺蹟-」, 『古代研究』, 古代研究會, 47쪽.



- 1.임랑리 2.칠암리 3.죽성리 4.청강리 5.시랑리 6.반송동 7.노포동 대룡 8.두구동 임석 9.노포동 10.오륜동 11.장전동 12.온천동 13.부곡동 14.급사동 15.복천동 16.내성 17.반여동 18.사직동 19.거제동 20.당감동 21.양정동 22.수영동 23.대신동 24.괴정동 패총 25.괴정1동 26.괴정2동 27.감천동 28.조도패총 29.율리 30.화명동 31.북정 32.분절(미음동) 33.지사동 34.가덕도 두문 35.연산동 36.길천리 37.방곡리 38.가동 39.회동동·석대동 40.연지동시민공원부지 41.반룡리

〈도면 1〉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서영남 2001에서 개변)

2. 유적의 분포현황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다수 있으나 발굴 조사 된 유적은 대략 30개소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도시개발로 인해 原地形이 파괴된 곳이 많아 유적 분포상황의 특징을 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의 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동부지역은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장군·해운대구, 북서지역은 금정산 자락의 크고 작은 구릉성 산지 말단부 및 해안으로 흘러가는 수영천·운천천변의 소규모 충적지, 서부지역은 낙동강 서안의 충적지 등에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주거지 약 60여동, 무덤 25기, 고상건물지, 구상유구 등이 소수 있다. 인근의 울산·양산·김해 지역과 비교할 때, 생활유적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이에 비해 무덤의 개체수는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인접한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농경에 적합한 충적지 및 완만한 구릉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시기구분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자료의 증가에 따른 연구성과로 인해 다양한 案이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시된 안재호의 3시기 구분법을 수용하고자 한다.⁴⁾ 이는 미사리 유형을 早期로 편년하고, 송국리·검단리 유형의 등장을 획기로 前·後期로 양분한 시기구분법으로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석기유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 주거지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등의 요소로 편년되고 있다.⁵⁾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약 60여 동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장방형·방형 등의 方形系와 圓形系로 대별되는데, 비율은 전자가 약 70%, 후자가 약 30%의 비율이다. 출토지역은 동부권에서는 방형계가 우세하고 원형계는 중·서부지역에서만 확인된다.

早期에 해당하는 대형방형의 미사리식주거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청동기시대 조기의 물질문화는 층적지의 입지·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田作⁶⁾ 등으로 대표되며 주로 点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조기의 주거지가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과 인접하는 낙동강 이서 남해안과 울산⁷⁾등지에서 최근 조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속출하고 있어 부산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前期로 편년되는 세장방형 주거지는 礎石을 설치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이른바 관산리식주거지로 불리는 전기 이른 시기의 주거지와는 차별된다. 이러한 세장방형 주거지는 대부분

5)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장·단비에 의한 수치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대봉(2012)은 이에 대해, 장·단비를 수치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세분한다면 계측수치에 따라 애초 주거지를 구축할 때의 플랜과 다른 평면형태를 도출할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판단하고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구축시에 고려된 성격과 주혈 및 노지의 개수 등으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이해하였다. 본고의 주거지 평면형태도 이에 따라 4주식+1노지를 방형, 6~8주식+1노지를 장방형, 그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분류·편년토록 하였다.

6) 金在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 鄭大鳳, 2012, 「東南海岸地域 出現期 無文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삭평되어 노지의 형태 등은 알 수 없지만, 출토유물로 볼 때 전기전반 이후의 주거지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부산지역의 동부권에서만 확인된다.

後期の 주거지는 검단리유형의 방형계주거지와 송국리유형의 원형계주거지로 대별된다. 원형주거지는 평면 타원형에 중앙에 원형 수혈을 설치하고 중앙수혈 외측에 중심주공을 설치한 형태이다. 반면, 방형계주거지는 검단리유형의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와 혼암리식주거형태가 확인된다. 울산식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4~6주식의 정형한 주혈배치, 단벽으로 약간 치우친 정형한 노지위치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혼암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는 울산식주거지와 유사하지만 무질서한 주혈·노지의 배치가 특징이다. 양자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혼암리식주거지가 울산식주거지에 선행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소위 송국리문화유형의 주거형태로 알려져 있는 원형계주거지로 전형적인 (타)원형과 말각방형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주로 청동기시대 후기 한반도 중서부지역 및 남해안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원형계주거지는 강서구 미음동유적(1동),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1동)⁸⁾, 석대동유적(10동)⁹⁾ 등 총 12여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중앙의 타원형 수혈 외측에 다시 원형의 소혈을 설치한 전형적인 형태로 사천 이금동유적과 유사하다. 이러한 송국리식 원형주거지는 현재로는 부산지역의 서부권·중부권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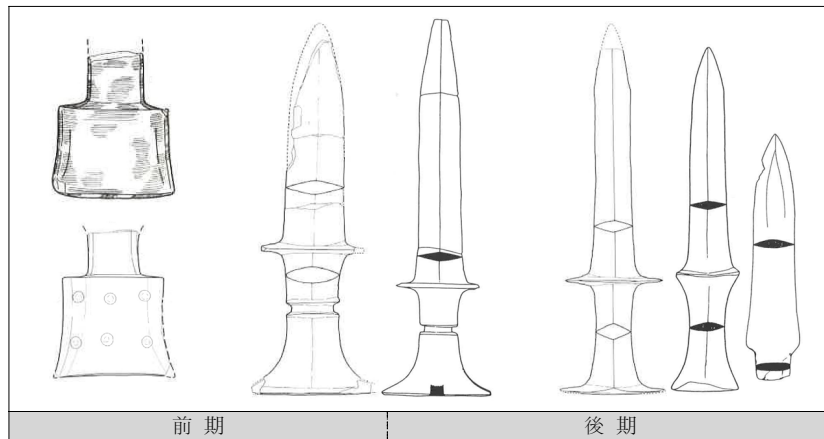
8) 동양문물연구원, 201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동양문물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1-04.

9)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회동동·석대동유적』.

2. 석기

석기의 편년은 주로 석검과 석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석검은 병부의 형태에 따라 이단병식, 일단병식, 유절병식, 유경식으로 구분된다. 이단병식석검은 단부의 길이와 병부의 만곡도가 시간적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¹⁰⁾ 부산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석검은 회동동유적의 장식석검과, 기장 방곡리유적 9호 주거지 출토품으로 병부의 단부가 길고, 신부에 혈구가 음각되어 있다.



1. 방곡리 2. 회동동 3. 사직동 4. 대신동 5. 감천동 6. 동래 7. 수영동

〈도면 2〉 부산지역 출토 석검 (좌→우 시간순)

10) 安在皓, 1990, 『韓國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碩士學位論文.

朴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黃昌漢, 2008, 「青銅器時代 裝飾石劍의 檢討」, 『科技考古研究』 14號, 아주대학교박물관.

다음으로는 반여동유적 출토품으로 병부 측면의 형태가 방곡리 출토품에 비해 八 字狀으로 형성되는 점으로 볼 때, 이단병식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절병식석검은 대신정, 사직동¹¹⁾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일단병식석검은 감천동, 동래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석검의 마지막 단계인 유경식석검은 수영동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석촉은 무경식과 유경식이 확인되었다. 반여동유적에서 출토된 무경식은 비교적 장신촉으로 끝부분이 능형촉의 단면과 같이 마름모꼴이다. 이러한 형식은 경주 송선리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무경식의 가장 늦은 형식에 해당한다. 최근 필자의 석촉의 연구에서 각 형식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는 물론 화살대의 종류와 분포에 따라 지역성을 띤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는데 부산지역은 대나무를 이용하는 송국리문화권과 싸리대를 사용하는 울산권의 점이지대로서 여러 가지 형식의 석촉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¹²⁾

이상 석검과 석촉으로 볼 때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는 아직 조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분포양상을 보인다.

IV. 석기의 기종별 석재분석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 중에서 석재유물이 다수 출토되었고 석재의 동정이 이루어진 4개 유적 80점의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12) 황창한, 2012,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지역성 연구」, 『야외고고학』 13,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표 1> 분석대상유적 및 석기의 기종

유적	기종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도	석촉	석겸	석검	석창	선형 석기	주상 석부	석좌	지석	연석	방주 차	환상 석부	옥	계
분절유적		2	5	2	14	1	4		1	2	1			1			33
회동유적		2					1										3
석대유적			4		5		2	1		1		1	1				15
방곡리유적		1	3	2	2		4	1			1	9	1	2	1	2	29
계		5	12	4	21	1	11	2	1	3	2	10	2	3	1	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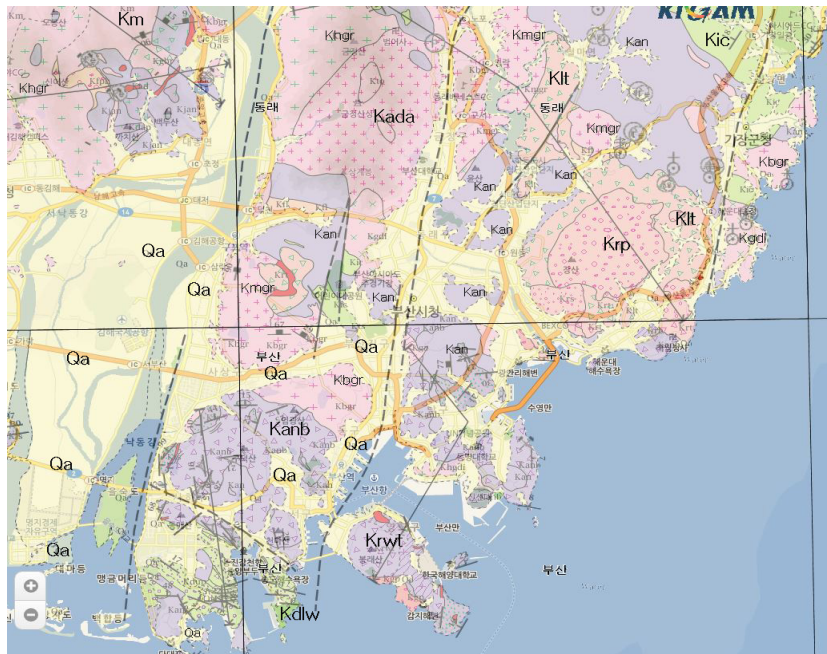
<표 2> 석기의 기종별 석재 분포

(단위 : %)

암질	기종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도	석촉	석겸	석검	석창	선형 석기	주상 석부	석좌	지석	연석	방주 차	환상 석부	옥	계
혼펠스		1 (20)	12 (100)		4 (19)		6 (55)		1 (100)	3 (100)	2 (100)						29 (36)
안산암 질응회암		3 (60)															3 (4)
이암				3 (75)	17 (81)	1 (100)	5 (46)	2 (100)				1 (10)		1 (33)			30 (38)
화강암												1 (10%)	1 (50%)				2 (3)
유문암				1 (25)										2 (67)			3 (4)
사암												8 (80)	1 (50)		1 (100)		10 (13)
편마암		1 (20)															1 (1.3)
아미존 스톤																2 (100)	2 (3)
계		5	12	4	21	1	11	2	1	3	2	10	2	3	1	2	80 (100)

부산지역의 지질은 <도 3> 과 같은데 전체적으로 화강암, 안산암 등의 화성암계열이 우세하며, 변성암, 퇴적암이 해안을 따라 일부 분포하는 양상이다. 석기의 석재는 기본적으로 각 기종의

특징에 따라 제작 및 사용에 효과적인 암석을 인근 지역에서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부산지역의 석기도 이러한 양상과 대동소이하지만, 부산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특징적인 암석으로 제작된 석기도 확인되었다.



Km 경상계 불국사동 마산암. Khgr 각섬석화강암. Kada 경상계 마산암류 아다멜라이트. Qa 제4계 충적층. Klt 레피리응회암류, 유문암질 또는 석영안산암질 레피리응회암 및 각력암. Kan 안산암 및 조변안산암. Kanb 안산암질화산각력암. Krwt 유문석영안산암질용결응회암. Kdlw 적색, 회색, 녹회색사암 세일 역암. Krp 유문반암. Kgd 화강섬록암. Kmgr 흑운모화강암. Kic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 Kmgr 미문상화강암.

〈도 3〉 부산지역의 지질분포

13) 황창한, 2007, 「巖石의 分析方法과 考古學的 適用」, 『東亞文化』 23,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V. 석기의 산지·제작지·유통에 대한 검토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석기류의 석재를 검토한 결과 혼펠스, 이암, 사암, 안산암질응회암, 유문암, 화강암, 편마암, 아마존스톤 등 8종의 석재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부산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를 이용한 석기류는 안산암제 합인석부, 유문암제 석도·방추차, 이암제 석도·석촉·석검·석창·지석, 화강암제 지석·연석, 사암제 지석·연석·환상석부 등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부산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석재로 제작된 유물이 확인되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러한 석재로 제작된 유물인 석검, 석부, 옥 등을 중심으로 석재의 산지를 추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작, 유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마제석검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석검은 혼펠스와 이암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남한지역에서 이단병식마제석검의 분포는 도면 4와 같다. 박선영¹⁴⁾에 의해 세분된 형식이 제시되었는데 이 단계에는 지역에 따라 석검의 재질의 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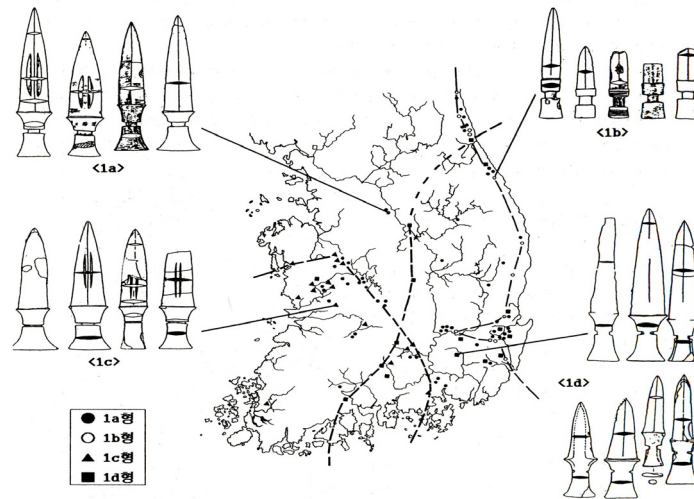
먼저 영남지역의 경우 주로 흑색이암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청색이암을 사용하였다.¹⁵⁾ 반면 퇴적암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영동지역과 호서지역의 일부에서는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변성

14) 林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5) 혼펠스가 산출되는 영남지방의 자료와 그 외의 자료를 실견한 결과 혼펠스로 제작된 이단병식석검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의 확인은 컬러판 도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혼펠스제 석검과 동시에 촬영된 도판(국립대구박물관 2005)을 참조하면 이단병식석검은 모두 흑색계열의 퇴적암 또는 편암이다.

암인 흑색편암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다. 이단병식석검의 제작은 취락내에서 미완성품의 출토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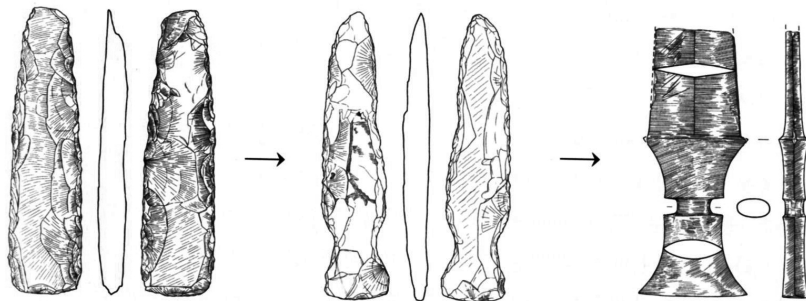
이단병식석검의 제작에 사용된 이암과 편암은 판상으로 박리가 용이하며, 마연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석재의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부산지역에는 석검을 제작 할 수 있는 퇴적암의 분포가 의외로 적다. 부산지역에서 퇴적암의 분포는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분포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섬으로 육지와는 분리되어 있고 산출상태도 적색계통이 많아 석검제작에 사용되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이단병식석검의 제작에 사용된 퇴적암의 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면 4> 이단병식 석검의 분포(박선영 2004에서 전재)

16) 이단병식석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부분은 흑색이암, 청색이암, 편암 등의 산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석검의 제작에 사용된 흑색, 청색계열의 퇴적암은 부산지역을 벗어난 서부지역과 북쪽으로는 울산권에 다량 분포하고 있어 양 지역을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부산 회동동유적¹⁷⁾에서 출토된 석검 중 초현기의 석검으로 볼 수 있는 소위 장식석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⁸⁾ 이러한 장식석검은 영남지역의 동부지역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데 그 분포권의 중심은 울산권이다. 따라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前期의 문화가 울산권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단병식석검의 석재도 이곳에서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단병식석검의 제작은 거시적인 지역권 내에서 특정집단을 상징하기는 어렵지만 소지역권 내에서의 생산과 유통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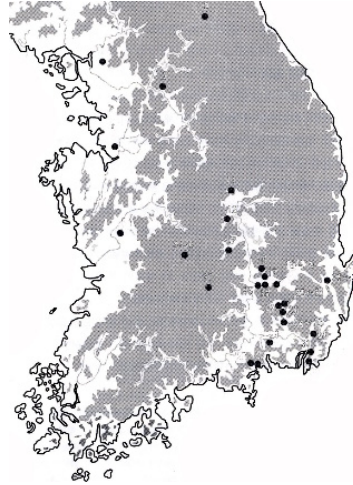
〈도면 5〉 이단병식석검의 미완성품으로 본 제작과정(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다음은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유절병식석검과 일단병식석검으

17) 삼강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 회동동 유적』.

18) 黃昌漢, 2008, 「青銅器時代 裝飾石劍의 檢討」, 『科技考古研究』 14號, 아주대학교박물관.

로 재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혼펠스로 제작되었다. 유절병식석검에 대한 연구는 張龍俊·平郡達哉의 논고가 주목된다.¹⁹⁾ 상기의 논고에서 유절병식마제석검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석검제작의 근원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절병식석검의 생산체계와 유통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는 석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된 탁견으로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매장예의 공유가 이미 석검출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싶다. 張龍俊·平郡達哉의 견해와 같이 유절병식석검 단계에서 유사도는 더욱 높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석검의 형식은 그 출현기부터 성립하기 때문이다.



〈도면 6〉 유절병식석검의 분포
(張龍俊·平郡達哉 2009에서 전재)

다만 이단병식석검이 유절병식석검보다 형태의 변이가 큰 것은 이단병식석검 단계에는 석검의 기본 형태는 공유하고 각 집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며, 유절병식단계부터 유사도가 높아지는 것은 석검의 사회적 상징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제작집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문제작집단은 일단병식, 유경식석검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절병식석검의 석재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혼펠스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 분포권은 도면 6과 같이 고령·대

19) 張龍俊·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구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서지역과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분포는 적어진다. 전단계인 일단병식석검의 분포권보다 범위가 축소되며 뚜렷해지는 양상으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절병식석검의 분포권이 공교롭게도 혼펠스산지로 확인된 고령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고령지역의 혼펠스 산지를 본격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석검의 제작은 고령을 중심으로 위치한 청동기시대 집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그리고 분포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국리문화권이 형성되는 호서지역과의 교류가 있었다. 즉 이 단계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영남내륙과 동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아직 송국리문화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호서지역의 집단과도 교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병식석검 단계는 송국리문화가 확산되어 정착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일단병식석검은 주로 송국리문화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호서지역의 재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유절병식석검이 공유되어 있었고 이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송국리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혼펠스제 석검의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¹⁾. 이 단계는 혼펠스제 석검의 수요가 가장 높아지는데 송국리문화권에서 대규모, 대량의 무덤이 축조되는 상황과 연동된다. 때문에 혼펠스제 석검을 원활

20) 석기 제작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령에 입지하고 있는 집단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통제한 다른 집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청동기시대취락에 관한 연구가 집적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1) 유절병식석검단계에서 일단병식석검으로의 형식학적 변이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석검의 재질로 본 유통적인 측면에서도 송국리문화의 형성은 재지집단의 변화에 의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게 조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일부 재지의 흑색 또는 청색이 암재로 제작하여 부장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유경식석검까지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부산지역출토 이단병식석검은 울산지역 등 북부권의 청동기문화집단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이후 유절병식석검 및 일단경식석검 등은 고령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송국리유형 분포권의 석기제작·유통 시스템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대구(고령)→청도→밀양→부산 루트를 통해 입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석부류

석부류는 혼펠스, 안산암질응회암, 편마암 등의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혼펠스는 편인석부와 주상편인석부(유구석부포함)를 제작하였으며, 별목구로 추정되는 합인석부는 안산암계열이 우세하다. 먼저 혼펠스계 석부류는 부산지역의 혼펠스 산출상태로 볼 때 마제석검과 동일하게 부산을 벗어난 지역에서 그 산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안산암질 석재로 부산을 포함해 양산, 청도, 경산, 경주, 울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암석으로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분포가 현저히 떨어지는 암석이다.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합인석부류는 대부분 안산암류로 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석부를 제작한 석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오륜동유적에서 출토된 편마암계석부와 분절유적에서 출토된 석류석편마암계석부편이다. 이 암석은 부산일대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암석이다. 이러한 암석으로 제작된 석부에 대해 최근 부산과 인접한 울산

지역의 청동기시대 변성암류 석부에 대한 연구가 참조된다.²²⁾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편마암체 석부류의 특징은 표면이 풍화되지 않고 신선하며, 마연된 면은 인부를 중심으로 광택이 있다. 색상은 회흑색, 연적색, 우백색 등으로 확인된다. 석부를 제작한 변성암 중에서 특히 반상의 석류석²³⁾이 포함된 암석과 규암이 주목된다. 한반도 동남부지역인 울산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은 평해와 울진지역이다. 평해 이남에서 울산을 포함하는 동부경남지대에는 이러한 변성암은 분포하지 않는다. 하동-합천-성주-안동-영양-평해를 연결하는 선상의 동남부지역을 경상분지라하는데, 이 분지 내에는 편마암, 편암 등의 변성암류는 분포하고 있지 않다. 경상분지 이서(以西)의 지리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변성암지역의 변성암류를 소백산편마암 복합체라고 하며, 호상 편마암, 반상변정 편마암, 혼성암질 및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평해~울진지역을 포함하는 태백산편마암체의 변성암류에는 소백산편마암 복합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규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소백산편마암체서는 드물게 산출하는 석류석 화강암질 편마암이 많이 산출한다.²⁴⁾ 위와 같이 경상분지 이서(以西)와 이북(以北)의 변성암류의 분포에 있어서의 뚜렷한 차이점은 규암과 석류석 화강암질 편마암의 분포이다. 그러므로 규암의 석기와 석류석 화강

22)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야외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3) 석류석은 변성암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지만, 일정 유형의 화성암에서도 나타나며, 쇄설성(碎屑性) 퇴적물과 퇴적암에서는 대개 소량으로 산출된다. 이들은 무색이나 흑색 또는 적색과 녹색의 여러 색조를 띤다. 석류석에 대한 정보는 金洙鎭(1996)에 잘 정리되어 있다.

24) 金玉準 외, 1963, 「울진도폭」, 『한국지질도』, 국립지질조사소.
尹碩奎申炳雨, 1963, 「평해도폭」, 『한국지질도』, 국립지질조사소.
나기창, 1999, 「제2장 층서 제1절 선캠브리아 이언층」, 『한국의지질』, 대한지질학회.

암질 석기를 만든 원암은 평해~울진지역의 태백산편마암복합체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⁵⁾ 이러한 암석 분석결과가 인정된다면 오륜동 출토 화강편마암제 합인석부와 분절유적에서 출토된 석류석편마암제석부편은 울진 또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태백산편마암복합체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그 루트는 울진-포항-경주-울산-부산 또는 안동-대구-경주-울산-부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동부권에서 울산식주거지의 검출 비율이 높은 점도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마암제 석기류의 유통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주로 이루어졌고 후기가 되면 거의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7〉 울산지역 및 부산지역 출토 편마암류 유물

3. 옥

기장 방곡리유적에서 확인된 2점의 옥은 소위 천하석으로 알

25)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야외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려져 있는 아마존스톤(amazonstone)으로 확인되었다. 아마존스톤으로 제작된 옥제품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각 지역의 무덤과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스톤의 산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주 남강유역 일대의 유적에서 옥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옥가공에 필요한 지식, 천공구 등과 아마존스톤 원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옥제품의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참조한다면 아마존스톤제 옥제품은 남강유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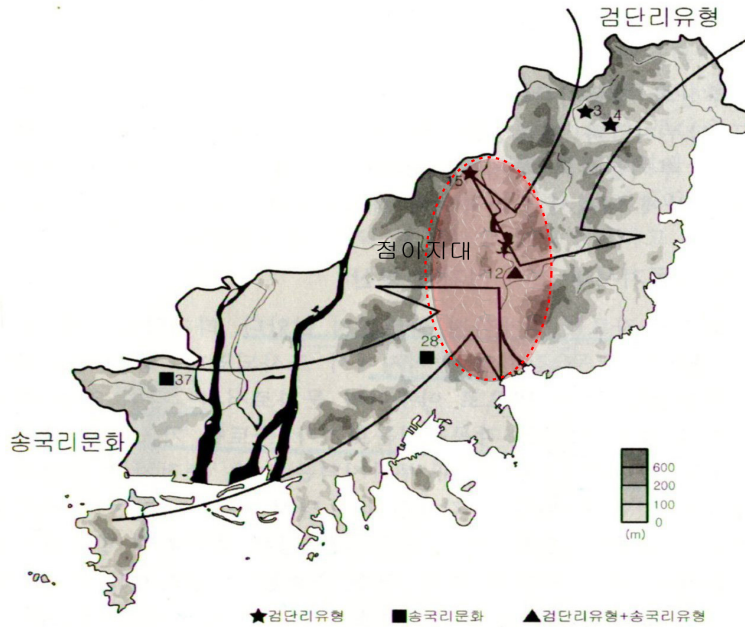
VI. 석기를 통해 본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조기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동기시대 조기유적의 부재에 대해서는 충적지가 발달하지 않은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²⁷⁾도 있으나 최근 경주 충효동, 금장리유적 등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어 부산지역에서 조기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²⁸⁾ 그러나 현재까지의 양상으로 볼 때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는 전기와 후기의 유적이 중심이다. 청동기시대 전기 이후 후기에는 소위 검단리문화와 송국리문화의 접이지대로서 양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을 형성한다. <도면 8>

26) 庄田慎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の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7) 金在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8) 李秀鴻, 2012, 「釜山 青銅器時代 後期文化의 地域相」, 『港都釜山』 제28호.



〈도면 8〉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의 전과(이수홍 2012 개변)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석기의 산지 및 제작지를 통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마제석검의 경우 전기의 이단병식석검은 모두 이암으로 제작되었는데 부산지역의 이암은 해안과 내륙의 일부에서만 산출되며, 석검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암은 산출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석검 중에서 회동동유적에서 출토된 장식석검은 주 분포권이 울산지역으로 형태와 규격이 거의 흡사하다. 이러한 점은 특정 지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주, 울산지역에서는 이단병식석검 미제품이 주거유적에서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이러한 사

례는 전무하다. 즉 부산지역 출토 이단병식 마제석검은 경주, 울산권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후기의 유절병식석검과 일단병식석검인데, 모두 혼펠스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부산지역에서 혼펠스산지는 이암과 동일하게 해안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산출상태가 균열이 심해 석검을 제작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각 유적지에서 제작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 바도 없다. 이러한 혼펠스제 석검은 고령과 대구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혼펠스제 석검은 대구, 고령 일대에서 제작되어 청도-밀양을 거쳐 부산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혼펠스제 석검은 검단리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울산지역으로는 이입되지 않아 점이지대로서의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합인석부는 기본적으로 별목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경사회에서 건축용, 생활용 목재 또는 가경지의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이다. 즉 실생활에 사용된 도구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편마암류는 경도가 강하며, 내구성도 보통이상으로 석부의 재질로서 모두 적합하다. 즉 편마암류는 도구로서 좋은 내구성이 담보된 암석으로 별목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제 유물에서도 별목부의 특징인 비대칭 사용 흔적이 확인되어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도가 좋다는 점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구성이 좋은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의 까다로움을 들 수 있다. 실제 실험제작에 있어서도 혼펠스와 안산암보다 편마암류의 제작이 까다로운데, 특히 마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도구 제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내구성을 가진 편마암류가 안산암, 혼펠스 등의 석재에 비해 반드시 효율적인 암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²⁹⁾ 그렇다면 이러한 편마암제

석부가 도구로서의 기능 외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편마암류 석부의 특징 중 한가지로 전면에 광택이 있는 제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석부의 신부는 쪼으기의 흔적을 남겨 착병구와의 마찰력을 강화시켜 도구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한다. 반면 마연이 까다로운 편마암류에서 전면을 광택이 나게 마연한 점은³⁰⁾ 도구로서의 효율성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한 것은 아닐까. 실제 유물에서도 광택이 있는 편마암류 석부는 옥 제품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석류석이 포함된 편마암은 인부가 무더져 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석부는 마치 보석으로 치장된 형상으로 도구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재지의 흑색안산암이나, 혼펠스에 비해 색조가 화려한 우백질 화강편마암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듯한 석류석편마암도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구로서의 기능 외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편마암류 석부가 부산지역으로 유입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동기시대문화의 전파 루트와 관련한, 교류의 산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부산지역은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동해안 루트의 교류지로서 지속적으로 문화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교류의 대상은 무엇이였을까.

구석기시대의 수렵채집 집단 간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

29) 석재의 내구성에 대한 내용은 안민자(2001, 45p)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편마암은 보통 정도의 내구성, 규암은 아주 좋은 내구성에 속하며, 울산지역에서 산출되는 변성사암(혼펠스 등)은 좋은 내구성을 나타낸다.

30) 울산 언양읍의 석재상에서 이루어지는 광택작업도 연마제의 입자에 따라 3~4회의 공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한다.

여 정보교환은 물론 동맹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혼인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한다.³¹⁾ 민족지적인 사례에서도 신부가 혼인을 할 때 석부를 혼례품으로 지참하는 경우도 있어³²⁾ 부산지역의 편마암류 석부도 이와 같은 의미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만하다.

VII. 맺음말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는 현재까지 조기유적의 부재지역이며, 전기와 후기의 유적만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세 개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데, 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서지역에 분포하는 송국리문화의 서부권,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의 이동지역에 분포하는 검단리문화의 동부권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지를 중심으로 양 문화의 접이지대인 중부권이다.

이러한 지역권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의 변방으로서 발현한 것이지만 결국 지리적 조건에 따른 생계방식의 차이에 의해 발현한 두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석기의 검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정밀하게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석기의 산지와 교류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31) 성춘택, 2009,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32) 佐原 真, 1994, 『斧の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參考文獻】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7, 『古村遺蹟(Ⅲ地區)』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老圃洞遺蹟-경부고속도로 노포IC 건설구간내 유적-』
- 金洙鎭, 1996, 『鑛物科學』, 서울: 祐成.
- 金玉準 외, 1963, 「울진도폭」, 『한국지질도』, 국립지질조사소.
- 金在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나기창, 1999, 「제2장 층서 제1절 선크브리아 이언층」, 『한국의지질』, 대한지질학회.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기장 반용리유적Ⅱ』.
- 동양문물연구원, 201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동양문물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1-04.
- 朴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 부산박물관, 2013, 『분절유적』.
- 부산시립박물관, 2011, 「온천동유적Ⅱ 발굴조사-금강시민공원 정비사업 조성부지-」 약보고서.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 회동동 유적』.
- 서영남, 2001, 「釜山의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 제17호.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慶州 龍江洞 靑銅器時代 聚落遺蹟』.
- 성춘택, 2009,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安敏子, 2001, 『前期無文土器時代 石器의 特性檢討』,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0, 『韓國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오건환·곽종철, 1989,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I)-地形環境과 遺蹟-」, 『古代研究』.古代研究會. 47쪽
-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機長 芳谷里遺蹟』.
-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기장 방곡리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회동동·석대동유적』.
- 尹碩奎·申炳雨, 1963, 「평해도폭」, 『한국지질도』, 국립지질조사소.
- 李秀鴻, 2005, 「檢丹里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秀鴻, 2012, 「釜山 青銅器時代 後期文化의 地域相」, 『港都釜山』 제28호.
- 張龍俊·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鄭大鳳, 2012, 「東南海岸地域 出現期 無文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佐原 眞, 1994, 『斧の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 황창한, 2007, 「巖石의 分析方法과 考古學的 適用」, 『東亞文化』 2·3,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黃昌漢, 2008, 「青銅器時代 裝飾石劍의 檢討」, 『科技考古研究』 14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아외 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황창한, 2011,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考古廣場 9』, 釜山考古學研究會.
- 황창한, 2012,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지역성 연구」, 『아외고고학』 13,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한반도 남부지역의 靑銅器時代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정의된 특정 類型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자료증가와 이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한 2000년대를 起點으로 심화·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小地域 단위의 세부적인 편년과 지역성, 그것을 토대로 지역간 교류, 나아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원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성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고의 대상인 釜山地域은 청동기시대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다소 연구가 미진한 死角地域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도시화 진행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기장군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신자료가 發掘·報告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는 현재까지 조기유적의 부재 지역이며, 전기와 후기의 유적만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세 개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데, 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서지역에 분포하는 송국리문화의 서부권,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쪽의 이동지역에 분포하는 검단리문화의 동부권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지를 중심으로 양 문화의 접미지대인 중부권이다. 이러한 지역권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의 변방으로서 발현한 것이지만 자연적인 요인으로서 청동기시대의 생계방식과는 다소 이질적인 지리적 특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분석한 결과 각 기종별로 특징적인 석재를 사용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다. 각 기종별로 확인된 석재의 산지를 확인한 결과 편마암제 석부와 혼펠스·이암제 마제석검은 부산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암석이거나, 석재를 구하기 곤란한 제품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전기는 동해안 루트를 따라 교류가 이어졌으며, 송국리문화로 접어든 후기에는 검단리문화와 공존하는 점이지대를 형성하는 특징적인 지역으로 형성된다.

핵심주제어 : 부산, 마제석검, 석부, 편마암, 이암, 혼펠스,
검단리문화, 송국리문화

【Abstract】

**The locality of Busan as stone tools
of the Bronze Age**

Hwhang, chang-han / Uls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study of the Bronze Age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ern region has been phased in based on the defined specific types since the 1970s. Later, research results with increase of data and their deepening and development from the 2000s, which began to be accumulated, have led to the current. Currently, the study of the Korean Bronze Age has been studied the detailed chronolog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regional unit and the exchanges and so on. In addition, it has been tried to find the headwaters of the Bronze Age of the Korean Peninsula. Busan, the study area of this paper has not been made a lot of research because of insufficient of the Bronze Age. However recently, as the new data in Busan have been reported, the need for studies have emerged. In the Bronze Age of Busan region, early ruins up to now have not been confirmed and have been confirmed only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late ruins. Busan is three possible settings of easement in the late Bronze Age.

This is Songgungni culture distributed to the west of the Nakdong river and Geomdan-ri culture distributed on the east side to the boundary of the Taebaek Mountains and currently the middle part region in which both cultures coexist around Busan city. But these easements are revealed from the elements of both

Songgungni culture and Geomdan-ri culture.

As a natural factors, they can be interpreted to be due to some foreign geographic features for the Bronze Age's living system.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stone excavated from remains of Bronze Age in Busan were made using a characteristic stone for each model.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origin of the stone is confirmed for each model, whether the rock is not calculated in Busan or difficult products were confirmed to obtain stones. In conclusion, the previous fiscal year of the Bronze Age culture of Busan lasted exchanges along the east coast route. The late entering the Songgungni culture is formed in a characteristic region point to co-exist with Geomdan-ri culture to form a zone.

Key words : Busan, Stone sword, Stone axes, gneiss, mudstone, hornfels, Geomdan-ri culture, Songgungni culture